

Fit 하는 순간, 오답도 실력이 된다!

이지수능교육(ezeducation)

고3 2022년 11월  
국어언매 오답노트플러스

# 이지오답핏



## ■ 문항별 분석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결과
01	독서	독서	내용 일치	2	O
02	독서	독서	부분 내용 추론	3	O
03	독서	독서	전체 내용 추론	2	O
04	독서	독서	전체 중심내용 파악	2	O
05	독서	독서	부분 중심내용 파악	2	O
06	독서	독서	부분 내용 추론	2	O
07	독서	독서	전체 내용 추론	2	O
08	독서	독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	3	O
09	독서	독서	어휘	2	O
10	독서	독서	내용 일치	2	O
11	독서	독서	부분 중심내용 파악	2	O
12	독서	독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	3	X
13	독서	독서	어휘	2	O
14	독서	독서	내용 일치	2	O
15	독서	독서	전체 내용 추론	2	O
16	독서	독서	부분 중심내용 파악	2	O
17	독서	독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	3	O
18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O
19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말하기 방식	2	O
20	문학	산문 문학	작품 내용의 이해	2	O
21	문학	산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O
22	문학	운문 문학	작품 비교 감상	2	O
23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O
24	문학	운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O
25	문학	운문 문학	시어와 시구의 의미	2	O
26	문학	산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2	O
27	문학	산문 문학	작품 내용의 이해	2	O
28	문학	산문 문학	작품 구조의 이해	2	O
29	문학	산문 문학	작품 내용의 이해	2	O
30	문학	산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O
31	문학	운문 문학	작품 비교 감상	2	O
32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O
33	문학	운문 문학	작품 전개의 이해	2	O
34	문학	운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O
35	문법	단어	단어의 형성	2	X
36	문법	단어	단어의 형성	2	O
37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O
38	문법	음운	음운	2	O
39	문법	문장	문장 성분	2	X
40	매체	매체	매체 언어의 표현 파악하기	2	O
41	매체	매체	매체 언어의 표현 파악하기	2	O
42	매체	매체	매체 자료 구성의 적절성 파악...	3	O
43	매체	매체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3	O
44	매체	매체	매체 자료 구성의 적절성 파악...	2	O
45	매체	매체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2	O

## 나의 오답 문항

## 고3 2022년 수능 국어언매 12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 문제

§ 세부단원정보 : 독서 | 독서 | 구체적 사례에 적용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 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 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 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이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질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이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이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 재량 준칙이라 한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00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가)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나)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

(단, 위의 모든 상황에서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 ②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 ④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 ⑤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 유사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설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하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002 읽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㉔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㉕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㉖ 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㉗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㉘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㉙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003 읽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 나의 오답 문항

고3 2022년 수능 국어언매 35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 문제

§ 세부단원정보 : 문법 | 단어 | 단어의 형성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 명사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합성 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갈비찜’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갈비’와 ‘찜’이다. 그런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갈비’, ‘찌-’, ‘-ㅁ’이라는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합성 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를 세밀히 알 수 있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 한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합성 명사의 두 어근에도 ㉡ 중심적 의미나 ㉢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뜻하는 합성 명사 ‘도끼눈’은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합성 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이는 ‘비바람’, ‘이슬비’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벼락공부’, ‘물벼락’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 일부는 합성 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주로 관찰된다. 가령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에는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꿀’의 이러한 의미는 합성 명사의 선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에는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바다’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바다’는 합성 명사의 후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004 ㉠에 따를 때, <보기>에 제시된 ㉡~㉤ 중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은?

- <보 기>
- 동생은 오늘 ㉡ 새우볶음을 많이 먹었다.
  - 우리는 결코 ㉢ 집안싸움을 하지 않겠다.
  - 요즘 농촌은 ㉣ 논밭갈이에 여념이 없다.
  - 우리 마을은 ㉤ 탈춤놀이가 참 유명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유사문제

§ 출전 : 고3 2022년 수능 국어연매 36번

005 윗글의 ㉠, ㉡와 연관 지어 &lt;자료&gt;에 제시된 합성 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합성 명사	뜻
칼잠	옆으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
머리글	책의 첫 부분에 내용이나 목적을 간략히 적은 글
일벌레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입꼬리	입의 양쪽 구석
꼬마전구	조그마한 전구

- ① ‘칼잠’과 ‘구름바다’는 ㉠을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② ‘머리글’과 ‘물벼락’은 ㉠을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는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④ ‘입꼬리’와 ‘도끼눈’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 ⑤ ‘꼬마전구’와 ‘꿀잠’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는 ‘원어기(遠語機)’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telephone’에 해당하는 단어로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전화기(電話機)’가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의 뜻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원어기’는 말을 ‘멀리’ 보낸다는 점에, ‘전화기’는 말을 ‘전기로’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개화기 사전에 등장하는 ‘소젓메쥬(소젓메주)’처럼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소젓메쥬’는 ‘치즈(cheese)’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메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가례언해』(1632)에 따르면 ‘총각(總角)’은 ‘머리를 땀아 갈라서 틀어 맴’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를 뜻한다.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던 단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땀아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대찌개’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끓였던 것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

우리는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한불자전』(1880)에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길보기’와 ‘산돌이’가 등장한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은 ㉠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장소를 일 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풀이된 ‘산돌이’는 ㉡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산을 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006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립스틱’을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던 염료인 ‘연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술연지’라고도 했다.
- ‘변사’는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장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설명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 ‘수세미’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을 뜻하는데, 그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다. 오늘날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
- ‘혁대’의 순화어로 ‘가족으로 만든 띠’라는 뜻의 ‘가족띠’와 ‘허리에 매는 띠’라는 뜻의 ‘허리띠’가 제시되어 있다.
- ‘양반’은 조선시대 사대부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점잖은 사람’의 뜻으로 주로 쓰인다.

- ① ‘입술연지’는 ‘소젓메주’처럼 일상의 단어로 새로운 대상을 인식한 예로 볼 수 있겠군.
- ② ‘변사’는 무성 영화와 관련해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상이 반영된 예에 해당하겠군.
- ③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총각’과 유사하겠군.
- ④ ‘가족띠’는 ‘재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에 초점을 둔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양반’은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겠군.

007 ㉠과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새해맞이,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① 새해맞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②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③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 ④ 새해맞이, 한몫하다
- ⑤ 새해맞이

## 나의 오답 문항

고3 2022년 수능 국어언매 39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 문제

§ 세부단원정보 : 문법 | 문장 | 문장 성분

008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 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② ㉠과 ㉡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③ ㉠과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④ ㉢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 출전 : 고3 2021년 수능 국어연매 38번

009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 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 ①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 ②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몐다.
- ③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 ④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 ⑤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 출전 : 고3 2017년 수능 국어 13번

010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li> </ul>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박눈이 하늘에서 평평 내리고 있다.</li> </ul>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평평’이 부사어로 쓰였군.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는 너무 험 차를 한 대 샀다.</li> </ul>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li> <li>㉡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li> </ul>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li> <li>㉣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li> </ul>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 출전 : 고3 2012년 06월 평가원 국어 11번

011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 보 기 >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동일한 ‘체언 +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② [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③ [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④ [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 ⑤ [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NOTEPLY™

# 정답과 해설

응답하라. 나의 수능 - 나를 알아주는 최적의 학습 시스템

[www.noteply.co.kr](http://www.noteply.co.kr)

## 1 정답 ②

##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에서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1문단의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라는 내용에 따라 위약금 100을 손해 배상 예정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되었으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갑은 을에게 정해져 있는 손해 배상 예정액 100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약금 약정이 없었던 (가)에서 을의 손해 액수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80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③ (나)에서 위약금 100은 손해 배상 예정액이므로 갑은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된 경우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모두, 손해 배상 예정액인 100을 법원이 재량에 의해 감액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위약금 100은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2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위약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으며,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재량에 의해 이를 감액할 수 없다. ⑤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2 정답 ④

##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의 내용을 통해, 기축 통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세 국가의 합의에 의해 기축 통화인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이 각각 50%, 30% 하락하였다.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이 B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에 비해 작으므로, 합의 이후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는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에 비해 합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 이후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가 합의 이전보다 낮아져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상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국가 간 환율에 의해 B국에 대한 C국의 수출은 증대되고 수입은 줄어들어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을 것이다.

## 3 정답 ⑤

##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바젤Ⅲ' 협약에서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도록 하고 있다. 갑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변동 없이 1,000억 원이고, 기본자본은 50억 원이므로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은  $(50/1,000) \times 100 = 5\%$ 가 된다. 따라서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보완자본의 증액 여부는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 은행은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바젤Ⅱ' 협약에 따르면 자기자본은 110억(50억+20억+40억) 원이고, 위험가중자산은 1,000억(300억+300억+400억) 원이므로 BIS 비율은  $(110/1,000) \times 100 = 11\%$ 가 된다. 따라서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인 8%를 상회한다. ② <보기>에서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만약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회사채의 위험가중자산은 줄어든다.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면 BIS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에서 분모가 작아지므로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아지게 된다.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는 가정하에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국채나 회사채 모두 동일하게 300억 원이 된 상황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위험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50%이므로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600억 원이 된다. 만약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보다 큰 1,000억 원이라 가정할 때,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300억 원이므로 국채의 위험가중치는 30%가 된다. 즉 국채의 위험 가중치가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보다 낮다. ④ <보기>는 '바젤Ⅱ' 협약에 따라 발표한 표이므로 회사채의 실제 규모에 위험 가중치 50%를 곱한 값이 300억 원이다. 따라서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600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젤Ⅰ' 협약에 따르면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100%이므로 '바젤Ⅰ' 협약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600억(600억×100%) 원임을 알 수 있다.

## 4 정답 ②

##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

지문해설 : 이 글은 합성 명사의 구성 요소인 어근들이 지니는 구조적, 의미적 특성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 글이다. 1문단에서는 '갈비찜'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면 그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합성 명사를 이루는 어근들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특정 단어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중심적 의미만 지나다가 그 단

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에는 새로운 주변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합성 명사의 어근이 합성 명사 내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꿀잠’, ‘구름바다’의 사례를 통해 일부 어근들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 경향성을 지닌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주제] 합성 명사의 구조적, 의미적 특성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과 ㉡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각각 ‘(집+안) + (싸우-+ㅁ)’과 ‘(논+밭) + (갈-+이)’로 분석되어 ‘(어근+어근) + (어근+접사)’의 내부 구조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새우 + (볶-+음)’으로 분석되고, ㉣는 ‘[달+(추-+ㅁ)] + (놀-+이)’로 분석되기 때문에 ㉠, ㉡와 내부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 5 정답 ④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입꼬리’와 ‘도끼눈’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꼬리’와 ‘도끼’로, 그 위치가 서로 다르다.

[오답피하기] ① ‘칼잠’과 ‘구름바다’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잠’과 ‘구름’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② ‘머리글’과 ‘물벼락’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글’과 ‘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벌레’와 ‘벼락’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⑤ ‘꼬마전구’와 ‘꿀잠’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꼬마’와 ‘꿀’로, 그 위치가 같다.

### 6 정답 ③

단어의 의미 형성

정답 해설 : ‘수세미’는 그릇을 닦을 때 쓰이기도 하던 특정 식물을 지칭하는 기존의 의미에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일반적인 의미의 ‘설거지 도구’라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사례이다. 그러나 ‘총각’은 ‘머리를 땅아 갈라서 틀어 땀’이라는 기존의 의미가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로 변화된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일상의 단어였던 ‘메주’를 사용하여 ‘치즈’를 ‘소젓메주’로 표현했듯이, 일상의 단어였던 ‘연지’를 사용하여 ‘립스틱’을 ‘입술연지’로 표현한 것이다. ② ‘총각, 부대찌개’에 과거의 관습과 시대의 흔적이 담겨 있듯이, ‘변사’에도 무성 영화가 상영되었던 당대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④ ‘원어기-전화기’의 사례처럼 ‘가죽띠-허리띠’도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다를 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함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⑤

‘양반’은 원래 조선 시대의 특정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점에서 신분 구분이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 7 정답 ④

단어의 의미 형성 및 구성 방식

지문 해설 : 이 글에서는 먼저 현재와 다른 신조어였던 ‘원어기, 소젓메주’라는 사례를 통해 대상의 인식 방식에 따라 대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총각, 부대찌개’를 통해 단어 속에 과거의 관습과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끝으로, ‘두길보기, 산돌이’의 사례를 통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단어에 담긴 인식과 시대상 및 단어의 다양한 구성 방식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 해설 : ‘새해맞이’의 ‘새해’는 관형사 ‘새’가 후행 명사 ‘해’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새해맞이’는 ‘새해를 맞이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룬다. 한편 ‘한몫하다’의 ‘한몫’은 관형사 ‘한’이 후행 명사 ‘몫’을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한몫하다’는 ‘한몫을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룬다.

[오답 피하기] ‘두말없이’의 ‘두말’은 관형사 ‘두’가 후행 명사 ‘말’을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두말없이’는 ‘두말이 없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룬다. ‘숨은그림 찾기’는 ‘숨은그림을 찾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루지만, ‘숨은그림찾기’의 ‘숨은그림’에서는 관형사가 아닌 동사 어간 ‘숨-’에 어미 ‘-은’이 결합한 형태의 ‘숨은’이 후행 명사 ‘그림’을 수식한다.

### 8 정답 ①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의 관형사절 ‘내 친구가 보낸’에는 ‘누군가에게 혹은 어디에’ 정도의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고, ㉡의 명사절 ‘테니스 배우기’에는 ‘내가’ 정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 ㉣의 명사절은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 기능을 한다. ㉢ ㉣의 명사절만 ‘받다’의 주체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의 안긴문장은 관형사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이며,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 ㉤의 안긴문장은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며, ㉤의 안긴문장 ‘신이 닳도록’은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한

다. ㉔에서의 보어는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이다. ㉕ ㉔의 관형사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지 않았으며, ㉔의 관형사절 ‘아름다운’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9 정답 ①

서술어의 자릿수

정답해설 : <보기>에 쓰인 ‘유리하다’는 ‘이익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관계되어 딸리다’라는 뜻을 지니는 ‘속하다’ 역시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10 정답: ③

문장 성분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㉓에 쓰인 부사어 ‘너무’는 ‘샀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어 ‘헌’을 수식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주어 서술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여 ‘푸른’을 수식하고 있다.

㉔ 명사 ‘하늘’에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평평’이 각각 부사어로 쓰여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㉕ ㉖의 ‘엄마와’와 ㉗의 ‘취미로’는 모두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인데 후자와 달리 전자는 문장의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이다. ㉘ 일반적으로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보격 조사 ‘이/가’를 취하여 (생략이나 보조사 실현 가능) 나타나는 문장 성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㉙의 ‘재가’는 보어이며, ㉚은 명사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그런데 둘 모두 서술어 ‘되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 11 ⑤ 정답률 78%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㉕ ‘주셨다’와 ‘빌렸다’는 모두 필수적 부사어를 동반하므로 ‘지혜에게’와 ‘친구에게’를 필요로 한다. ‘주셨다’와 같은 수여동사들은 모두 필수적 부사어를 동반한다.

오답이 오답인 근거

㉑ 첫 번째 문장의 ‘삼촌과’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것과’만이 필수적 부사어이다.

㉒ 두 번째 문장의 ‘공원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궤도에서’만이 필수적 부사어이다.

㉓ 첫 번째 문장의 ‘몽둥이로’는 생략할 수 있다. ‘사위로’만이 필수적 부사어이다.

㉔ 두 번째 문장의 ‘오후에’는 생략할 수 있다. ‘벼농사에’만이 필수적 부사어이다.